

영화 '기생충', 아카데미 시상식 오를까



외신이 예측한 아카데미 작품상·감독상 유력 후보

북미서 당초 3개관서 시작해 현재 총 603개관서 상영

악하기'라는 제목으로 제91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유력 후보들을 예측했다.

'기생충'은 여기에서 '아이리시 맨'(감독 마틴 스코세지)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감독 쿠엔틴 타란티노) '결혼 이야기'(감독 노아 바움백) '리틀 우먼'(감독 그레타 거윅) '페인 앤 글로리'(감독 페드로 알모도바르)와 함께 유력(Lead) 작품상 후보로 꼽혔다.

그밖에 작품성 수상 가능성이 있는 작품으로 '어 뷰티풀 데이 인 더 네이버후드'(감독 마이클 헬

러), '어 히든 라이프'(감독 테렌스 맬릭), '조커'(감독 토드 필립스), '저스트 머시'(감독 테스틴 크리튼), '로켓맨'(감독 엑스터 플레처) 등이 꼽혔다.

그뿐 아니라 봉준호 감독은 마틴 스코세지 감독(아이리시맨), 노아 바움백(결혼 이야기), 그레타 거윅(리틀 우먼), 쿠엔틴 타란티노(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페드로 알모도바르(페인 앤 글로리), 테렌스 맬릭(어 히든 라이프) 등과 함께 유력 감독상 후보로도 예측됐다.

'기생충'은 당초 아카데미 시상

식 유력한 외국어 영화상 후보로 꼽혔으나, 북미 개봉 후 영화에 대한 호평이 쏟아지고 있어 작품상과 감독상의 유력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11일(현지시간) 북미에서 개봉한 이 영화는 당초 3개관에서 시작해 현재 총 603개관에서 상영되고 있으며 지난 10일(현지시간)까지 현재에서 총 1131만 8741달러(약 131억7257만원)의 흥행 수익을 벌어들였다. 이는 올해 북미에서 개봉한 외국어 영화 중 최고 수입이다.

뉴스1

영화 '기생충'(감독 봉준호)이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가 예측한 아카데미 시상식의 유력 후보로 꼽혔다.

11일(현지시간) 버라이어티는 '오스카 예측 2019: 유력 후보 과



천우희·신하균·이혜영 영화 '앵커' 크랭크인

"새롭고 강렬한 영화"

천우희, 신하균, 이혜영의 흥미로운 캐스팅으로 주목받은 영화 '앵커'(감독 정지연)가 리딩고 고사를 마치고 지난 9일 촬영을 시작했다.

배급사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는 12일 이 같이 밝히며 천우희, 신하균, 이혜영의 모습이 담긴 리딩 및 고사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세 배우는 '앵커'에서 의문의 제보 전화로부터 시작된 미스터리한 사건 속으로 관객들을 이끌 예정이다.

'앵커'는 방송국 간판 앵커 세라에게 의문의 제보자가 자신이 살해될 것이라며 직접 취재해 달라는 전화를 걸어오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천우희는 의문의 제보 전화를

뉴스1

받고 미스터리한 사건의 한 가운데 놓이게 되는 방송국 메인 앵커 세라로 변신한다.

이혜영이 연기할 인호는 세라가 제보자의 집을 찾았을 때 만나게 되는 의문의 신경정신과 의사로, 그녀를 더 큰 혼돈 속으로 이끈다.

또한 방송국 간판 앵커인 딸의 일상을 강박적으로 관리하면서, 그의 커리어에 집착하는 세라의 엄마 소정 역에 이혜영이 출연한다.

'봄에 피어나다' '소년병' '감기' 등의 단편영화로 독립영화계에서 주목받았던 신에 정지연 감독이 직접 쓰고 연출하는 '앵커'는 천우희, 신하균, 이혜영의 강렬한 시너지가 탄생시킬 신선한 재미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가운데 2020년 개봉 예정이다.

전현무♥이혜성, 연인됐다...KBS 아나운서 선후배 커플 탄생

"심리적 상처 줄 수 있는 과도한 억측·비방 자제 부탁"

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전현무(42)와 이혜성(26) KBS 아나운서가 열애 중이다.

12일 전현무 소속사 SM C&C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전현무와 이혜성 아나운서는 '아나운서'라는 직업적 공통분모 속에서 선후배간의 좋은 관계를 이어오다, 최근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됐다"며 열애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아직은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인 만큼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당사자들에게 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는 과도한 억측과 비방은 자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현무도 KBS 아나운서로 근무했기에, 두 사람은 KBS 아나운서 선후배 커플이란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편 전현무는 지난 2006년 KBS 공채 32기 아나운서로 입사, 방송 활동을 이어가다 2012년 9월 프리선언을 했다. 현재는 KBS 2TV '해피투게더4',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와 MBC 전



지적 참견 시집' 등에 출연 중이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지난 2016년 KBS 공채 43기 아나운서로

입사해 KBS 쿨FM '설레는 밤, 이혜성입니다'의 진행을 맡고 있다. 최근까지 '연애가중계'의 MC로 활약했다.

뉴스1

슈, 日 솔로 싱글 발매 연기 "컨디션 불량 탓"



첫 번째 라이브 연기 소식'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가수 슈가 일본 컴백을 연기한다.

9일 다이아몬드 뮤직은 공식 홈페이지에 'Shoo(슈) 싱글 릴리즈

해당 글에서 다이아몬드 뮤직은 "오는 25일 Shoo의 LIVE, 27일 솔로 데뷔 싱글 릴리즈가 예정됐지만, 컨디션 불량 때문에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티켓 구입을 해주신 분은 티켓값을 환불해드립니다. 구매하신 플레이 가이드에서 연락드릴 것"이라며 "일정이 결정되면 연락 드릴테니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당초 슈는 오는 27일 일본에서 솔로 싱글 '아이 파운드 러브'(I found Love)를 발표하고 활동에 나선 예정이었으나, 컨디션 난조로 컴백을 연기하게 됐다.

앞서 슈는 지난해 6월 서울 광진구 소재의 호텔 내 카지노에서 2명에게 모두 6억 원 대의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검찰이 수사를 진행,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슈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 차례에 걸쳐 7억 9000만 원대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검찰은 슈를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슈는 지난 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후 자숙의 시간을 갖던 그는 일본에서 1년5개월여 만의 활동 재개를 선언한 바 있다.

뉴스1

송가인 단독 콘서트 '가인이어라'

15일 MBC 재방송 추가 편성

가수 송가인의 단독 콘서트 '가인이어라'가 재방송된다.

송가인은 12일 "지난 10일 오후 MBC에서 특별 편성으로 방송된 단독 콘서트 '가인이어라'가 오는 15일 오후 8시30분 재방송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송가인의 '가인이어라'는 6.8%, 8.5%(전국 기준)를 기록하며 끝없는 인기를 입증했다. 특히 식지 않는 화제성에 힘입어 '가인이어라'는 오는 15일 재방송으로 추가 편성을 확정했다.

'가인이어라'를 통해 신곡 '저울의 달' '이별의 영동선' '가인이어라' 무대를 뽐낸 송가인은 오



는 29일 청주에서 포문을 여는 '미스트롯' 전국투어 콘서트 시즌2 '청춘'으로 열기를 더한다. 이번만 아니라 '청춘' 콘서트에는 송가인 친오빠가 속한 국악팀 '바라지'가 합류했다고 알려지며 신선한 무대로 관객들의 만족도까지 높일 계획이다.

한편 송가인이 출연하는 '청춘' 콘서트는 경주와 천안, 익산에서 추가 공연을 확정했다.

MEGABOX 광주첨단점

1관	터미네이터:다크페이트
2관	신의 한 수:귀수편
3관	82년생 김지영
4관	신의 한 수:귀수편
5관	터미네이터:다크페이트, 가장 보통의 연애
6관	닥터 슬립
7관	말레피센트2, 조커, 가장 보통의 연애
8관	신의 한 수:귀수편
9관	82년생 김지영, 날씨의 아이, 아담스 패밀리

문의전화 1544-007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엠코로 35(쌍암동)

CGV 광주하남점

1관	날씨의 아이, 터미네이터:다크페이트, 닥터 슬립
2관	82년생 김지영,
3관	날씨의 아이, 신의 한 수-귀수편, 아담스 패밀리
4관	신의 한 수-귀수편
5관	아담스 패밀리, 82년생 김지영, 닥터 슬립
6관	터미네이터:다크페이트

문의전화 1544-11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400번길 30 테라스 56 피크닉몰 2층